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은희^{1*}, 이경옥¹
¹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iveness of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on Peer Relation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un-Hee Lee^{1*} and Kyung-Ok Lee¹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후실험 통제집단 설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후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가운데 집단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재학 중인 18명의 아동들이다. 이 아동들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은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9명은 통제집단으로 집단 구성을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동질성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한 후, 실험집단은 주 2회 1회기 당 50분씩 총 10회기의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제집단은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은 후,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나타난 교우관계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할 시 유의점 및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on peer relation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tes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is study employed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Total 18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have completed the program. 9 children were in experimental group, whereas 9 ones belonged to control group. the date were analyz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and Mann-Whitney U test. As the result, The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was verified to effect on children' peer relation Improv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dditional exploratory research.

Key Words :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eer Relation, Program

1. 서론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증하는 국제결혼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한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8년 말 5만 8000명에서 2009년 5월 10만 760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약 1200만 명인 19세 이하 아동의 거의 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9명중 1명이 다문화가정 자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 (Dongguk University)

Tel: +82-10-9266-2890 email: leh@dongguk.ac.kr

Received October 22, 2012

Revised (1st November 12, 2102, 2nd December 5, 2012, 3rd January 2, 2013)

Accepted February 6, 2013

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자연스런 동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1].

따라서 이러한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또래의 일반가정 아동과는 달리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또래집단으로 부터는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2]. 뉴욕타임지는[3]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젊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을 동화시키는데 실패하면 유럽, 미국이 이미 겪고 있는 소수인종문제, 빈곤계층문제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야누스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관련된 문제들이 벌써 현실적으로 곳곳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결과[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문화갈등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행동적 문제 및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심지어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5].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중퇴율은 15.4%로 전체 평균의 2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아동들은 학령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해 왔던 것에 반하여,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초기 아동기부터 아동들은 학교에서 낯선 동료 및 어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도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7]. 또래집단과의 원만한 관계형성,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역할수행 그리고 적절한 성취동기지향은 이 단계의 뚜렷한 발달과제들이다[8]. 즉 또래의 교우관계는 아동기 발달에 있어서 인간관계 기술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성격,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교실에서 학교 밖으로까지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9]. 바람직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는 부모의 대리적 기능을 넘어 사회능력 발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면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성격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아동들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0],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또래친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동이 소극적

이고, 회피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의 중요한 관계 중의 하나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교우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추후 학교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후원회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가운데 집단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재학 중인 18명의 아동들이다. 이들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은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9명은 통제집단으로 집단을 구성 한 후, 동질성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 절차 및 설계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까지 총 5주간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매회 50분 씩 총 10회에 걸쳐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다문화가정 후원센터이며,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의 연구자와 U광역시의 D지역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 2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보조연구원 1인과 함께 집단 내에서 책을 읽거나 자유 활동을 하였으며 아무런 실험적 처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실험설계인 전-후 실험 통제집단비교설계(pretest-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의 효과 즉, 순수한 개입효과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변화(O2-O1)에서 테스트 효과인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변화(O4-O3)을 제한 점수로 볼 수 있다.

[Table 1] pretest-posttest simple group design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개 입			
무작위 할당	실험집단	$O_1 \rightarrow X \rightarrow O_2$		
	통제집단	$O_3 \rightarrow O_4$		

2.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우관계 측정도구는 이화옥[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그리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

[Table 2] Cronbach's Alpha of Scale

교우관계	문항수	Cronbach's α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8	.820
교제의 지속성	8	.803
친구간의 적응	8	.752
친구와의 공동생활	8	.789

2.4 개입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은 이화옥[13]과 조순이[14]의 논문에서 사용한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1-2회기)는 별칭 짓기와 스타와의 만남놀이를 통해 참여 동기유발 및 친밀감향상, 2단계(3-5회기)는 친구에 대한 관심향상을 통해 공감력 향상, 3단계(6-7회)는 역할 놀이와 경험나누기를 통해 긍정적인 방법로서의 자기표현력 향상, 4단계(8-10회) 협동화와 협동놀이를 통해 협동성 및 공동생활능력을 향상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ontent of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단계	회기	주제	활동목표	프로그램 활동
1 단계	1	반갑다 친구야!	프로그램목적 및 규칙알기, 동기유발, 친구의 특징 알기, 자기개방하기	-프로그램 안내 -별칭으로 자기 소개
	2	즐거움 만남	게임을 통한 친밀감 형성하기, 친구에 대한 관심가지기	-친구 만들기 -스타와 인터뷰
2 단계	3	가족 소개하기	가족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고 가족과 나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가족나무 그리기 -가족의 특성소개 하기 -나의 가족의 공통점 찾기

4	숨은 그림 찾기	친구에 대한 관심향상(타인 수용) 자신의 숨은 매력이나 장점을 알고 이를 표현하기	-숨은 그림찾기 -인간 도미노 게임, 천국여행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사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알고 실천 할 수 있다.	-대답 없는 너게 임 -그림을 그려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말하기
3 단계	너와 나의 이야	친구를 사귀고 잘 지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좋은 친구가되려면? -함께 놀고 싶은 친구 -역할놀이
	다르지 만 괜찮아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할 수 있다.	-경험 나누기 -감정을 말하는 방법 배우기
4 단계	함께 그리는 세상	협동화를 통하여 친구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협동미술놀이를 통해 우리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협동화 그리기 -함께 맞추는 글자퍼즐
	점점 가깝게	함께 하는 신체 접촉 속에서 교우간의 일체감을 형성한다. 상호 수용하는 태도와 공동체의식을 깨운다.	-그림자놀이 -점점 가깝게 -안아주기 놀이
	우리는 친구	친구간의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며 자기긍정과 친밀한 교우관계를 경험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고 마무리를 한다.	-칭찬 합니다 -친구를 도올래요 -나의 다짐

2.5 자료 분석 방법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보기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위한 사전검사에서는 비 모수 통계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3.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과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인 성별, 학년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ample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 체	χ^2	p
성	남학생 4(44.4)	5(55.6)	9(50.0)	.222	1.000
	여학생 5(55.6)	4(44.4)	9(50.0)		
학 년	1학년 2(22.2)	3(33.3)	5(27.8)	1.067	.900
	2학년 2(22.2)	3(33.3)	5(27.8)		
	3학년 1(11.1)	1(11.1)	2(11.1)		
	4학년 2(22.2)	1(11.1)	3(16.7)		
	5학년 2(22.2)	1(11.1)	3(16.7)		
전 체	9(100.0)	9(100.0)	18(100.0)		

3.1.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앞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교우관계 수준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ann-Whitney U test

구 분	N	M	SD	U	Z	p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실험집단 9	2.83	.53	39.500	-.088	.929
	통제집단 9	2.82	.89			
교제의 지속성	실험집단 9	2.93	.63	37.000	-.311	.756
	통제집단 9	2.94	.68			
친구간의 적응	실험집단 9	2.79	.37	33.500	-.623	.533
	통제집단 9	2.81	.84			
친구와의 공동생활	실험집단 9	3.10	.47	39.500	-.089	.929
	통제집단 9	3.08	.80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인 두 집단은 교우관계 수준에 있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3.1.3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하여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Table 6] Wilcoxon signed rank test

구 분	사 전		사 후		Z	p
	M	SD	M	SD		
총체적 교우관계	실험집단 2.91	.31	3.19	.33	-2.073*	.038
	통제집단 2.91	.71	2.65	.54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실험집단 2.83	.53	3.26	.40	-2.003*	.045
	통제집단 2.82	.89	2.54	.60		
교제의 지속성	실험집단 2.93	.63	3.49	.30	-2.103*	.035
	통제집단 2.94	.68	2.69	.44		
친구간의 적응	실험집단 2.79	.37	2.88	.28	-.424	.672
	통제집단 2.81	.84	2.54	.54		
친구와의 공동생활	실험집단 3.10	.47	3.15	.60	-.061	.951
	통제집단 3.08	.80	2.82	.77		

* $p < .05$, ** $p < .01$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총체적인 교우관계수준을 살펴보면 사전검사(M = 2.91)에 비해 사후검사(M = 3.19)에서 통계적($z = 2.073$, $p < .05$)으로 유의미하게 교우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교우관계의 각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친구의 유무와 교제의 지속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우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구간의 적응과 친구와의 공동생활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점수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체적인 교우관계수준에서는 사전검사(M = 2.91)에 비해 사후검사(M = 2.6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변화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친구관계형성이 미숙한 아동들 간에는 같은 공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서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교우관계의 각 하위요인에서는 교제의 지속성과 친구간의 적응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친구 신뢰도와 친구와의 공동생활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변화였다.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집단비교설계를 이용한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점수를 뺀 점수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Mann-Whitney U test

구분	N	M	SD	U	Z	p	
총체적 교우관계	실험집단	9	.28	.32	8.000	-2.870**	.004
	통제집단	9	-.26	.28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실험집단	9	.43	.59	12.000	-2.536*	.011
	통제집단	9	-.28	.33			
교제의 지속성	실험집단	9	.56	.68	14.000	-2.346*	.019
	통제집단	9	-.25	.52			
친구간의 적응	실험집단	9	.08	.35	17.000	-2.107*	.035
	통제집단	9	-.26	.37			
친구와의 공동생활	실험집단	9	.06	.31	18.000	-2.029*	.042
	통제집단	9	-.26	.28			

* $p < .05$, ** $p < .01$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우관계 수준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체적 교우관계 수준은 실험집단은 평균 0.28점이 향상된 반면, 통제집단은 평균 0.26점이 줄어들어, 실험집단의 교우관계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0.54점만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Z = -2.870$, $p = .004$)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근거할 때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3.2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관찰과 참가자소감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은 본 연구의 연구자와 2명의 보조진행자의 관찰로 이루어졌다.

Table 8 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자 E와 I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참가에 소극적이며, 부끄러워하거나,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표현력도 증가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8] observation and interview record

참가자	관찰과 면담 및 참가자가 지각한 변화기록
참가자 A	첫 회기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목을 잘라버리겠다”, “대가리 터트려 버린다.” 등의 과격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주변의 아동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질문에는 ‘몰라’라는 대답만 함. 3회기 때는 아빠는 엄마가 일하고 늦게 오 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눈물을 보였음. 5회기 때는 친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면 된다고 하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자기방어를 위해 일부러 과격한 행동과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프로그램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주변아동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 짜증나게 해서 오기 싫었지만 차츰 재미있었고 친구도 생겨서 기분이 좋다. 친구들에게 욕하지 않고 친구들을 때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함.
참가자 B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차츰 자신감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임. “발표 할 때 조금 부끄러웠지만 재미있었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수업시간에도 발표를 잘해야겠다.”
참가자 C	처음에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 책상만 보고 있음. 4회기까지는 다른 아동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연구자와도 눈을 마주치면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임. 6회기 때는 자기는 따돌림으로 인해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없게 되어 지금은 가족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함. 프로그램을 마친후, “그동안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로웠는데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이 잘 받아주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는 정말 소중한 하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 정말 신이 났다.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다.”
참가자 D	처음부터 모자를 쓰고 있었음. 검은 피부색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쓴다고함. 9회기 때는 모자를 벗어놓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선생님이 발표를 많이 시켜서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니까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친절하게 대화로 해결해야겠다.”

참가자 E	처음부터 당당하게 발표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임. “재미있었다. 별칭을 만들 때 도 재미있었고 가족을 소개 할 때 정말 좋았다. 친구들과 게임 할 때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친구 꾸미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다. 앞으로 힘든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어야겠다.”
참가자 F	처음부터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소극적이었으나 차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고 노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야기 하는 방법을 계속 써야겠다. 자신감이 생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가자 G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아동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5회기 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감정표현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함. 감정표현에 서툰 모습을 보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친구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를 해야겠다.”
참가자 H	처음에는 귀에 이어폰을 꼰고 구석에 앉아 시선을 핸드폰에만 주며 다른 아동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2회부터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다가 4회부터는 이어폰을 벗고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엄마가 프로그램에 참가 하라고 하여 싫었는데 억지로 참가했다. 선생님이 참 좋은 분 같아서 계속 나왔다. 선생님이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셔서 좋았고 앞으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어울려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가자 I	1회기부터 프로그램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였고, 다른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었음. “처음부터 재미있었다.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지금처럼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힘든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부지런해 져야겠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써, 전후실험 통제집단 설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후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가운데 집단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재학 중인 18명의 아동들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은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9명은 통제집단으로 집단 구성을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동질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한 후, 실험집단은 주 2회 1회기 당 50분씩 총 10회기의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은 후,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나타난 교우관계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인 교우관계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비교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는 아동들의 교우관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하게 교우관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우관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실험집단은 친구의 유무와 교제의 지속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우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간의 적응과 친구와의 공동생활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점수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교우관계의 각 하위요인에서는 교제의 지속성과 친구간의 적응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친구 신뢰도와 친구와의 공동생활은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추후 학교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후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들 18명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가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만의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종결 후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추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추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들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과 효과도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비슷한 학년과 연령대별로 집단을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본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가능한 아동들의 수가 많지 않아 학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유사한 학년과 연령대별로 집단을 구성하고 각 집단 구성원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Kim, Haekyung ·Myhabg Do-Haesook Moon-Chungsun Park-Houngsook Son-Jungok Oh-Dalagigong Hong, Social Welfare with Families, Kongdongche, 2010.

[2] Joe, Youngdal, Heuione Yoon, Soonheui Kim. A multicultural educational text writing for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200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 The Kukmin Ilb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become a Janus of Korea Society, November, 30th, 2009.

[4] Kim, Gyeongja . Psychological oblems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Major i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5]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t up Education support measures of the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2006.

[6] The Kukmin Ilb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become a Janus of Korea Society, November, 30th, 2009.

[7] Sylva, K., School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5, pp. 135-170,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469-7610.1994.tb01135.x>

[8] Lynch, M. & Cicchetti, D.,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pp. 81-100,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022-4405\(96\)00031-3](http://dx.doi.org/10.1016/S0022-4405(96)00031-3)

- [9] Kim, Eun Ae. The Effects of Peer Counseling Program on Peer Relations and Self-concepts of the Peer counselors.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2003.
- [10] Kim, Su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Adapting to school.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0.
- [11] Kim, Mi-sun., The Effectsofself-esteem program on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2009.
- [12] Lee, Hwa-Ok, The effect of relation improving program on improving children's peer relations. Majoring in Elementary Counsel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7.
- [13] Lee, Hwa-Ok, The effect of relation improving program on improving children's peer relations. Majoring in Elementary Counsel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7.
- [14] Cho, Sun-yi, The Effect of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on Children's Social Ability. Major in Elementary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

이 경 옥(Kyung-Ok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울산지부

<관심분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